

농약 · 의약 수입 감소에 명품 급증

관세청, 8월 수출도 자동차 · 석유제품 의존 ... IT제품 수출은 급감

관세청은 우리나라가 8월 EU와의 무역에서 자동차와 석유제품의 수출 급증에 힘입어 1억3000만달러의 무역수지 흑자를 달성했다고 9월7일 발표했다.

무역수지는 한국-EU FTA(자유무역협정) 발효 이후 첫달(7월) 1억9000만달러의 적자에서 벗어난 것이지만 2010년 8월 흑자 2억4500만달러에 비해서는 절반 가까이 줄어든 것이다.

8월 수출은 주력인 자동차(163%), 석유제품(179%), 자동차부품(29%), 철강(24%) 등의 증가율이 두드러지면서 1년 전보다 15% 늘어난 43억1000만달러를 기록했다.

자동차 수출은 1억5800만달러에서 4억1500만달러, 석유제품은 1억4800만달러에서 4억1300만달러로 각각 뛰었다.

반면, 평판디스플레이(-52%), 반도체(-39%), 무선통신기기(-37%), 영상기기(-28%) 등 IT 주력제품의 수출은 급격히 줄어들었다.

수입은 항공기 및 부품(864%), 변압기 등 전자기기(75%), 섬유 및 화학기계(69%) 등이 큰 폭으로 늘면서 19% 증가한 41억8000만달러로 집계됐다.

소비재 가운데는 명품 수요 증가로 시계(733%), 향수(76%), 가방(56%), 신발(48%) 수입이 급증했지만 자동차(-31%), 농약 및 의약품(-5%)은 감소했다.

관세청은 "FTA 발효에 따른 관세인하 품목인 <FTA 혜택품목>의 수출은 18% 증가한 33억1000만달러, 수입액은 4% 늘어난 26억달러로 시간이 갈수록 FTA 효과가 가시화되고 있다"고 해석했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 · 재배포 금지>

<화학저널 2011/09/08>